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6. (월요일)

공정한 책임 분담과 심리사회적 지원, 분쟁 이후 재건의 과제로

- "스웨덴·네덜란드 대사단, 예측 가능한 재정 기여 기준과 지역 사회의 장기적 회복 위한 지원 강조" -



제4회 HLMUN 4차 비공식-비공식회의 (사진=hlmun press)

지난 11일 오후 19시, 한림대학교 공학관 1층 1163호에서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 제4차 비공식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국제지원의 공정한 비용 분담과 실행 가능성, 지역사회의 장기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식 등을 중심으로 각국 대사단의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공여국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과 물리적 복구를 넘어선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스웨덴 대사단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으로 국제지원의 비용과 역할 분담의 공정성,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꼽았다. 스웨덴 대사단은 "분담 기준이 불분명해지면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수혜국 주민들이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지원이 국가 간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려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대사단은 수정안 논의에서 공여국의 재정 기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같은 소득 그룹에 속한 국가끼리도 개별 공여국의 기여 목표를 따로 협의하기보다 국민총소득(GNI) 비율에 따라 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방식은 각 공여국이 부담할 재정적 몫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별 자발적 기여 목표라는 기존 원칙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책임 분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예측 가능한 국제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협의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 세부 기준을 추가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안한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 초기 목표액인 500만 달러에 먼저 적용해 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후에도 적용 기준을 계속 다듬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대사단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회복과 주민 간 신뢰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과 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등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대사단이 수정안 논의에 가장 반영하고 싶었던 부분은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의 중요성이다. 분쟁 이후 남은 트라우마와 심리적 상처가 주민들의 생계 회복과 교육 참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집과 도로 등 물리적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체 내 관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원도 평화구축의 필수 요소로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협의 방향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과 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실현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와 역할 분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수원국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임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스웨덴 대사단은 각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네덜란드 대사단은 물리적 복구와 함께 주민들의 마음과 공동체의 신뢰까지 회복하는 지원을 요구했다. 두 대사단 모두 국제지원이 수혜국 주민에게 실제로 닿아야 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한편,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총회(HLMUN)는 11월 18일 공식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장서연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